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3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5일 (음력 10월 28일) 수요일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상 허점 드러나 '말똥'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와 지원 등 전남 영상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남영상위원회가 인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내 말똥이 일고 있다.

전남 3개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전남영상위원회 소속 사무국장이 이중취업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매년 순천시가 1억 5000만원, 여수시와 광양시가 7500만원씩 각각 투자해 한해 3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국장 이중취업 의혹 등 관리 감독 허술해

순천·여수·광양시 투자...영상위 이사회 주목

사단법인이다.

순천에 사무소를 둔 (사)전남영상위원회는 2002년 남도영상위원회 설립된 이후 2006년 명칭을 변경했다. 말똥트 최수중 씨가 한달 200만원 수당을 받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외 김모(52)사무국장 등 직원 6명이 상근직으로 근무중이다. 2006년부터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매월 수당을 포함해 40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안전벨트 꼭 매세요"

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마장캠프에서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12월 한달 간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승자를 포함한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미 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김씨는 전남영상위원회와는 별개로 지난 4월부터 순천에 소재한 전남 C모 방송국 기획·사업국장직을 병행하고 있다. 광고 등을 유치해 회사 매출을 올리는 주요 직책이다. 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방송국 사업국장 명함도 들고 있다.

전남 C모 방송국 직원 A씨는 "우리는 그분을 국장으로 부른다. 책상도 있고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리는 간부회의도 참석한다"며 "건물이 있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무실 출입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 C모 방송국 관계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영입을 했는데 고작 몇 백만원 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해 오히려 화가난다"며 "리베이트는 총 금액의 10%에 플러스 알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일하는 김씨가 사적 이익을 위해 일반 기업에 취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인근 순천시 문화예술팀장은 "전남영상위 일과는 상관없이 방송국 업무를 위해 그쪽 회사에 출근하면 안된다"며 "시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만큼 오는 18일 열리는 영상위 이사회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씨는 "전남 C모 방송국에 자문을 해주거나 이메일 보기 위해 몇 번 갔었지만 광고 수주를 한 일이 한 번도 없고 그쪽 회사 직원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열린 순천만국제동물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획감독 인건비로 1700여만 원을 받는 등 기부금 부담수령 여부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수모

노무현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여사를 시칭한 40대 여성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윤정현 전 광주시장이이 여성 자녀들 취업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윤 전 시장 이자신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A(40·여)씨 자녀들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광주시의 한 신학기관. 딸은 광주 의 한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신학기관과 학교에 수사권을 보낸 압수수색을 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윤 전 시장이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사립과 자녀들의 취업시기가 비슷한 점에도 주목하고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노사민정 거쳐 내일 최종 타결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점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과 관련, 제1, 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지간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상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에 대한 공식 보고와 노사민정협의회의 추진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경우 6일 조인식을 통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시 협상단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현대차와

막판 협상을 벌여 현대차 완성차 공장 합작 법인 설립에 잠정 합의했다.

민선6기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공약화 한지 4년6개월만, 현대차가 투자지간을 제출한 지 6개월만이다.

시는 현대차와의 투자자 간 최종 합의안을 토대로 5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공식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협약은 최대 투자자인 광주시와 현대차 간 본협약과 노사민정 협의서가 필수인 부수협약을 더해 최종

타결되게 된다.

당초 지난 6월19일 체결하려 했던 투자협약이 협약식 하루 전날 무산됐던 것도 최종 합의안에 담긴 독소조항(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과 턱없이 낮은 임금 수준, 법적 검토와 타당성 조사 등 공장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한데 대해 지역 노동계가 반기를 들면서 부수협약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조인식 자체가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섭 시장의 주재로 열리는 5일 협의회에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백석 광주경실련 대표 등 노사민정협의

회 위원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광주시와 현대차 간에 진행된 완성차 공장 투자협상 경과 보고와 함께 선진 노사관계에 관한 광주시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논의하게 된다.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과 선진 임금 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인력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 협상단장인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와 잠정 합의를 마쳤다"며 "5일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의를 토대로 현대차와 마지막 협의를 거친 뒤 협약 체결 조인식을 갖게 된다. 조인식이 최종 협상 타결"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고용환경개선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겐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산업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